

第104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0年 9月 2日 (土) 午前 11時02分 開式

## 第104回 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11時02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친애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을 해주신 盧張鐸 副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를 동

반한 강한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20만 우리 종로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다시 뵈게 되어 매우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1세기 첫해의 새해를 설레임과 희망 속에 맞이한 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기상으로 한더위가 물러가고 조석으로는 선선해지고 논의 벼가 익어간다는 처서(處暑)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옛부터 우리 나라 3대 고유의 명절의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땀 흘려 가꿔온 일들에 대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하기만 하였던 여름을 보내는 계절의 길목에서 갑자기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한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귀한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가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격려와 따스한 온정을 아끼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3대 후반기 개원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재과업과 관련하여 관

내 의료 파업 철회와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한 수방대책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 들어 처음 맞는 8·15 광복절에 우리가 반세기 만에 혈육을 만나는 감격적인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보면서 분단의 현실의 아픔을 모두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우리에게서 무엇보다에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 협력해야만 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지금의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립, 반목과 대결 관계에서 7천만 은겨레의 염원인 신뢰와 공존,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민족 역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하물며 20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하는 똑같은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같은 우리 종로구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견해와 입장 차이로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 상호간의 갈등과 의회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의회를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는 동료의원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내실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 이래 매일 의회에 상근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의회 위상 제고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서울에 있는 20여 개 자치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과 시설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견학을 해서 세밀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의 다른 자치구의회 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현재 갖고 있는 주변의 모든 여건을 감

안하면 다른 자치구의회와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이지만 의회 청사 또는 모든 시설 면에서는 아주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의회 위상 제고 측면에서 의회 이정표, 의회 입구 현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청 건물 등에 의회기를 게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예우에 관한 규정도 집행부가 제정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회가 새 부대를 만든 때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새 부대에 담을 새 술을 빚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는 전임 의장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을 더한층 높이는 알찬 의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세부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제10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자치구의회마다 논란의 대상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전문지식과 의견 제시 등으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최되는 제104회 임시회는 새롭게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게 되는 만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

원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  
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04회 종로  
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7分 閉式)

---

○出席議員數 19人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保 健 所 長 李星世

